

# SK이노, '고성능 배터리 선점'... 10조 규모 양극재 구매

에코프로비엠과 '양극재 공급' 계약  
소재사업 공동투자 등 다분야 협력  
美 포드 전기트럭에 배터리 공급

SK이노베이션이 국내 1위 양극재 제조사 에코프로비엠과 고성능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손을 잡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에코프로비엠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0조원대 대규모 양극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계약 및 협약식에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지동섭 대표, 신영기 배터리 구매센터장과 에코프로 이동재 회장, 에코프로비엠 권우석 사장 등이 참석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지동섭 대표(오른쪽)와 에코프로 이동재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구매 계약 및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양측은 향후 양극재와 관련한 소재 사업 공동 투자, 국내외 공장 증설, 폐 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배터리셀 원가 비중의 약 50%를 차지한다. 에코프로비엠은 고성능 배터리에 사용되는 하이-니켈(Hig

h-Nickel) 양극재 분야 선도기업이다. 하이-니켈이란 양극재 주성분인 니켈, 코발트, 망간 중 니켈 비중이 높은 배터리를 말한다. 니켈 비중이 높아지면 배터리 성능이 좋아진다.

SK이노베이션은 핵심 소재 파트너사 중 하나인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넘어, 양사 협력을 통해 소재 산업 자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 내년 출시하는 미국 포드(Ford)의 대표 전기트럭 모델인 'F-150 라이트닝(Lightning)'에 'NCM9'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를 공급한다. NCM9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

중 니켈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양극재가 적용된 고품질 니켈 배터리다. 니켈 비중이 높아지면 배터리 성능이 뛰어난 대신 안정성이 낮아져 구현이 어려운 탓에 안전 관련 기술력 없이는 제조하기 어려운 배터리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배터리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가 없었을 만큼 독보적인 안전 기술을 바탕으로 에코프로비엠과 협력을 통해 2019년 세계 최초로 NCM9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지동섭 배터리사업대표는 "고품질 배터리 제조는 물론, 핵심 소재에 이르기까지 사업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톱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굳건한 파트너인 에코프로 그룹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 '온라인 추석장터' 열어 농가 지원

'농가돕기 착한소비' 캠페인 전개  
직원 농산물 구매액 50% 지원 판매

삼성이 올해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통 분담에 나선다.

삼성전자 등 관계사들은 9일부터 '농가돕기 착한 소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마련했다. 최근 농가는 오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 감소와 지역 축제 취소, 공급과잉까지 겹쳐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폐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전자 관계사, 삼성물산 및 삼성 금융관계사들은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 내에 농협과 함께 하는 별도 사이트를 만들고, 직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50%를 보태 판매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이트는 가격이 특히 많이 떨어진 고추, 양배추, 대파, 무, 배추, 오이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가에 대량 판매 기회를 주는 것뿐 아니라, 임직원에는 회사 구매 비용을

지원받아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체 구매 금액 30억원을 목표로 한다.

삼성은 또 수원과 용인 등 주요 사업장 소재지 인근 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에도 5억원 상당 농산물을 구입해 기부할 예정이다. 소외계층 이웃들이 함께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이다.

'온라인 추석 장터'도 1일부터 17일까지 이어간다. 코로나 19 이후 사업장에 열린 직거래 장터를 온라인으로 옮긴 것으로, 자매마을 특산품과 스마트 공장 생산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한다.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판로까지 개척해 더 가까운 상생을 실현했다.

아울러 삼성은 올해에도 협력사들에 8000억원 규모 물품 대금을 1주일 가량 조기 지급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여유 있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앞서 삼성전자는 2005년 국내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2011년부터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월 4회로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왔다.

/김재용 기자 juk@

## 미·레 로 만든 'LG 미래쑹'으로 MZ와 소통

LG, 유튜브 공개 하루만에 11만 뷰

LG가 미래 모습을 유쾌하게 담은 뮤직비디오로 MZ세대에 LG를 재밌게 소개했다. LG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LG의 미래쑹'이 공개 하루만에 조회수 11만회를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이 영상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LG의 모습을 뮤직비디오로 표현해 제작됐다. 싱어송라이터 은송과 함께 작업했으며, 음계 '미'와 '레'로만 만든 중독성 멜로디로 재미를 극대화했다. 실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LG 관계자는 "고객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사업 분야

에서 도전하고 있는 MZ세대 구성원들의 밝은 모습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LG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댓글에는 "미래를 미랑 레로 표현하더니 신박하다", "노래가 중독성 있고 머리에 자주 맴돈다", "기분이 좋아진다", "LG 직원들인가요? 다들 밝아보이네요",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는데 LG 영상이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LG는 올 상반기 젊은 직원들이 모델로 참여하는 브랜드 이미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 도전, 공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

## 한화큐셀, 태양광 셀·모듈에 1.5조 투자

5년간 국내 생산·연구시설 대상  
연간 1200만명 가정용 전기 생산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은 국내 생산 및 연구시설에 2025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고효율 제품 생산을 위한 라인 전환과 차세대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탠덤 셀 연구 등에 투자를 진행해 기술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의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셀과 모듈 공장으로 연간 4.5기가와트(GW)의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한다. 지난해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생산 제품 중 약 50%를 수출하고, 2000여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에 따라 한화큐셀은 국내에



한화큐셀 진천공장

3조원의 누적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공장의 셀과 모듈 생산능력은 2025년까지 연간 7.6GW로 확대된다. 이는 국내 기준 연 1200만명이 사용할 가정용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차세대 태양광 셀인 탠덤 셀 연구에도 박차를 가한다. 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 위에 차세대 태양광 소재

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쌓는 형태로 만든다.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의 이론한계 효율은 29% 수준이지만, 탠덤 셀의 이론한계효율은 44%로 높은 편이다.

이규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로 한화큐셀의 선도적인 업계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미래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큐셀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 미국, 독일, 영국, 한국 등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한화큐셀이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한 핵심 제품군이다. 한화큐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품질 검사 기준보다 최대 3배 혹독한 조건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SK텔레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ISO서 인증

관련 규격 유일한 국제표준 채택  
평가위 구성하고 사내 체계 구축

SK텔레콤이 국제적으로 오픈 소스 활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

SK텔레콤은 9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표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0년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오픈체인 프로젝트'의 규격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유일한 국제표준으로 채택했다.

오픈소스 ISO 표준 심사는 ▲오픈소스 정책과 프로세스 수립의 적정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여부 ▲개발자 교육·평가 등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 평가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올해 초 오픈소스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픈소스의 사용과 기여·공개 원칙 등을 규정한



SK텔레콤은 9일 ISO로부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표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은 오픈소스 포털을 구축, 오픈소스를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개하며 전산 개발자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개발자 지원채널인 '데보션'을 론칭하는 등 SK텔레콤을 비롯

한 SK ICT패밀리사의 내부 개발자와 외부 개발자간 소통과 기술 공유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오픈소스 ISO 표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오픈소스 관리체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한창대 기자 cdi@